조선시대 속옷의 형태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 천연염색(쪽과 탄닌)을 중심으로 -

이 은 자 · 이 미 석 · 김 정 호⁺

한남대학교 한국전통복식학과 석사 · 한남대학교 의류학과 강의전담교수 · 한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Study of Fashion Design Applying Underwear Forms in Joseon Dynasty Period

- Focused on Natural Dyeing (Indigo (*Jjok*) and Tannin) -

Eun Ja Lee · Mi Seok Lee · Chung Ho Kim⁺

Master, Dept.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s, Hannam University

Lecturer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nam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nam University⁺

(received date: 2015. 4. 13, revised date: 2015. 4. 22, accepted date: 2015. 6. 2)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types and forms of underwear worn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Joseon underwear design elements into designs of modern clothes, and make clothes that have practical use. In addition, it examines natural dyeing in the production of works, using a dye that contains tannin to increase color fastness.

This study, first, looked into the types of female underwear during the late-Joseon Dynasty perio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literature study. Second, the study chose artificial silk material (rayon), which was applied with dye containing tannin, and then with indigo (*Jjok*) and a different dye. Also, the study tested color fastness by washing the material, and rubbing fastness was tested if the material was either dyed with indigo, if it was dyed first with dye stuff containing tannin, and then with indigo dyeing color. Third, using the underwear types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the study developed and produced a dress, a skirt and pants that could be worn in modern life on a daily basis by applying

Mujigi-chima (underwearskirt), *Dan-sokgot* (slip), *Salchang-gojaengi* (loosedrawers) and *Sok-baji* (bloomers) forms. Dresses applying underwear skirt using naturally-dyed artificial silk, dresses applying *Salchang-gojaengi*, dresses applying *Dan-sokgot*, skirt without a crotch designed in the form of pant with an open crotch, and pant skirt with a crotch-applying pants with an open crotch were produced. In the future, hopefully, various studies of collaborations of Korean traditional clothing, and natural dyeing will continue to keep the tradition alive.

Key words: indigo(쪽), natural dyeing(천연염색), Tannin(탄닌), traditional underwear(전통 속옷)

본 논문은 석사 학위 청구 논문의 일부임

본 논문은 2015년도 한남대학교 교비 학술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Chung Ho Kim. e-mail: kimch@hnu.kr

I. 서론

속옷은 '속에 입는 옷의 총칭'으로 속옷의 용도는 겨울의 방한용, 여름의 땀받이용, 옷의 자태를 우아하게 보이기 위한 맵시용, 내외법에 의하여 생겨난 내외용(内外用)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겨울의 추위를 막기 위한 속옷이 요구되어 방한용 위주로 발달하였다.

조선시대 속옷의 종류와 형태는 매우 다양하였는데 남자용으로는 상의인 속저고리 또는 속적삼, 하의인 잠방이가 있었고, 여자용으로는 맵시용 뿐만 아니라 내외용, 땀받이용 등으로 많은 종류의 속옷들을 볼 수 있는데 상의에는 가리개용 허리띠, 속적삼, 속저고리가 있고 하의에는 다리속곳, 속속곳, 속바지, 단속곳, 너른바지, 무지기치마, 대습치마 등이 있었다. 하지만 생활환경이 변하고, 속옷의 간소화로 조선시대 많은 종류의 속옷들이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잊혀져 가는 전통 속옷의 다양한 형태를 알아보고 전통속옷의 형태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여 현대인들의 여름용 생활복 디자인에 응용해보고자 한다. 또한 여름용 생활복 제작에 있어서 탄닌을 함유한 천연염색을 함으로서 천연염색의 견뢰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속옷의 형태를 현대적 디자인으로 응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하였다. 첫째, 조선시대 여자속옷의 종류와 형태를 알아보고자 전통 속옷이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 견학과 도록,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통하여 조선시대 속옷

의 종류와 형태를 조사하였다.

둘째, 조선시대 속옷의 하의류 중에서 단속곳, 무지기치마, 살창고쟁이, 밑바대가 없는 바지와 밑바대가 있는 바지의 재현을 통해 제작방법과 바느질기법을 알아보았다.

셋째, 여름철에 착용할 수 있는 생활복 제작에 천연염색 소재를 사용하고자 탄닌이 함유된 오배자, 감물, 호두외피, 밤꺼질 등의 염색과 쪽 염색의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실험을 하였다.

넷째, 조선시대 여자 속옷의 형태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여 현대생활에서 착용할 수 있는 원피스와 치마, 바지 등의 일상복을 디자인 개발 제작하였다.

II. 조선시대 속옷의 종류와 형태

1. 상의

1) 허리띠

평상복에는 두 가지 허리띠가 있었는데 하나는 외출이나 일을 할 때 치마가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허리에 매는 것을 말하며, 또 하나는 당시의 습관 속에서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면서 치마와 저고리 사이의 거드랑이 밑을 가리기 힘들게 되고 그 가리개역할을 하기 위하여 생겨난 허리띠이다(Yoo & Kim, 1981).

허리띠(Fig 1)는 가슴싸개, 헐피 라고도 불렸으며 허리띠는 가슴을 눌러 납작하게 만들고, 조선후기에 짧아진 저고리 때문에 보이는 젓가슴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것으로 겨울에는 보온의 역할도 겸한다. 옷감으로는 옥양목이나 명주를 사용 했고 직사각형 형

<Fig. 1> Woman belt,
The old underwear and
obstruction
(KyungWoon Museum,
2006, p.11)

<Fig. 2> undershirt,
In the late Joseon period, distance,
ordered the great beyond this life
for males
(Dankook university, 2010, p.10)

<Fig. 3> undershirt,
Chosun women's dress oneself
a jacket,
(Dankook university, 2009, p.11)

태로 양 끝에 가는 끈을 달았다.

2) 속적삼

저고리 속에 입는 홀옷으로 <Fig. 2>, <Fig. 3>과 같이 저고리와 같은 모양이나 치수를 약간 작게 하며 동정과 고름을 달지 않고 형겅으로 만든 단추를 단다. 속적삼은 살에 닿는 옷이므로 땀이 배어들기 때문에 땀받이 즉 적삼, 한삼이라고 한다.

속적삼은 계절에 따라 그 계절에 맞는 옷감으로 지어 입었는데 혼인 할 때는 아무리 엄동설한이라도 분홍 모시 속적삼을 입었는데 그것은 속이 시원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입었다고 한다(Yoo & Kim, 1981).

2. 하의

1) 다리속곳

다리속곳은 현대의 팬티와 같은 것으로 소재는 계절에 관계없이 흰 목면으로 만들어 홀로 된 긴 감을 허리띠에 매달아 착용했다. 하체에 제일 먼저 입는 속옷으로 형태는 <Fig. 3>과 같은 것으로, 이것은

아마도 속속곳이 크기 때문에 자주 빨 수 없었으므로 손쉽게 자주 빨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속속곳이 없어지면서 이 다리속곳을 흔히들 입었는데 속바지는 여전히 입었으므로 이로써 그 더러워지는 것을 막았다 한다 (Yoo & Kim, 1981).

2) 속속곳

속옷의 하나로 내친의(內襯衣)라고도 한다. 여자들의 치마나 바지 등 겉옷 속에 입는 것으로 단속곳과 같은 형태이나 <Fig. 5>,<Fig. 6>,<Fig. 7>과 같이 단속곳 보다 치수가 약간 작고 바대나 밑길이는 더 길며 직접 살에 닿는 속옷이기 때문에 감은 옥양목, 무명, 광목 등을 많이 사용한다. 삼베, 울이 굵은 모시, 안동포 등이 사용되었다(Kim, 1998).

3) 속바지

속속곳과 단속곳 사이에 입는 속바지. 삼국시대부터 겉옷과 속옷으로 두루 착용하던 바지가 조선시대에 오면서 여자의 속바지로 정착된 것이다(Kim,

<Fig. 4> leg underwear,
The old underwear and sewing
(Kyungwoon Museum, 2006, p.22)

<Fig. 5> lingerie, Conversation with you in a
subdued voice
(Onyang Folk Museum, 2012, p.30)

<Fig. 6> lingerie, The old underwear
and sewing
(KyungWoon Museum, 2006, p.25)

<Fig. 7> lingerie, Conversation with you
in a subdued voice
(Onyang Folk Museum, 2012, p.32)

1998). 여자들은 속옷으로 속속곳, 바지, 단속곳 등 여러 가지를 착용하게 되었는데 이들을 통틀어 바지라고 할 수 있으나 협의로는 속속곳, 단속곳 사이에 입는 두 가랑이가 떨어지게 밑의 앞과 뒤를 튼 것만은 '바지'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이것은 치마 안에 입는 속곳으로서의 바지를 말하는 것으로 남자의 바지와는 달리 <Fig. 8>과 같이 밑이 따로 떨어져 있고 허리끈이 달려 있다. 밑이 따로 떨어지게 만든 것은 용변을 편하게 보기 위해서였는데, 당시 여인들이 용변을 볼 때는 단속곳의 한쪽 가랑이를 걷어 올리고 바지 밑을 벌린 다음 용변을 보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바지는 <Fig. 9>, <Fig. 12>과 같이 가랑이가 오픈라져 부리가 좁기 때문에 속속곳은 바지 안에 구겨져 들어가 있기 마련이었다.

바지는 계절에 따라 맞는 천을 사용하였으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입었다.

홀겹의 형태<Fig. 9>, 겹의 형태<Fig. 11>, 누비의 형태<Fig. 10>도 존재한다. 시원하게 입기 위하여 모시, 생모시, 생노방, 배, 안동포 등으로 층의 형태를 만들어 시원하게 만들어 입었는데, 이것을 고쟁이라 하고 하였으며 고쟁이를 입었을 때 바깥에서 보이는 부리 부분을 비단으로 덧대어 배기겹바지 모양으로 지어 입기도 했다. 속바지 중에서 여름철에 사용되었던 살창고쟁이가 있었는데 <Fig. 13>, <Fig. 14>, <Fig. 15>과 같이 허리말기 아래부분에 긴 구멍이 있는 특이한 형태이다. 구멍이 살창처럼 생겼다 하여 살창고쟁이라 하고, 문어다리처럼 생겼다 하여 문어고장주우, 가위로 잘라냈다고 하여 가새고장주우라고

<Fig. 8> A quilted cotton trousers under the wheel, Seongju multiple unearthed haepyeongyunssi the wife of Lee hyeongbo (Dankook university, 2010, p.116)

<Fig. 9> Hemp pants back placket, The old underwear and sewing (Kyungwoon Museum, 2006, p.63)

<Fig. 10> Three strands of a quilted cotton pants, It's an authentic taste sewing by hand from vain (Dankook university, 2012, p.10)

<Fig. 11> Back placket pants, Conversation with you in a subdued voice, (Onyang Folk Museum, 2012, p.28)

<Fig. 12> Cock quilting by hand and pants open back and forth, Conversation with you in a subdued voice (Onyang Folk Museum, 2012, p.26)

<Fig. 13> Back placket a lattice window loose drawers worn by Korean women, Andong Area traditional clothes (Andong University, 1996)

<Fig. 14> Back placket next to a lattice window loose drawers worn by Korean women, The old underwear and sewing (KyungWoon Museum, 2006, p.58)

<Fig. 15> Wide opened next to a lattice window loose drawers worn by Korean women, Conversation with you in a subdued voice (Onyang Folk Museum, 2012, p.14)

도 부른다. 여러 지역에서 입혀졌으나 안동지방에 많이 남아 있다(Kim, 1998).

4) 단속곳

단속곳은 속바지 위에 입는 속옷으로 치마보다는 다소 짧은 것으로 양 가랑이가 넓으며 밑이 막혀있다. 형태는 <Fig. 16>, <Fig. 17>, <Fig. 18>과 같이 속속곳과 같으나 다만 길이가 약간 길다. 앞뒤 중앙에서 안쪽으로 주름을 4개씩 잡아서 16개를 만들어 허리에 달았다.

오른쪽을 약간 트고<아우지> 앞끈을 뒤로 돌려 앞으로 가져다 맨다. 겨울에는 명주, 삼팔, 여름에는 모시, 생명주, 향라, 사(紗)등으로 하고 봄가을에는 옥양목, 향라, 명주 등을 사용하였다(Kim, 1998).

5) 무지기 치마

무지기 치마는 조선시대 상류층 부녀자들이 입던 속치마의 하나로 모시 12폭으로 만드는데 홀수인 3층, 5층, 7층 등 층층으로 길이가 각기 다른 여러개의 치마를 겹쳐서 한 허리에 붙였다.<Fig. 19>

가는 주름을 잡아 부피감을 주어 오늘날의 패티코트와 같은 역할을 하였는데, 각 치마의 밑단에 분홍, 노랑 등 원색을 물들였다.

젊은 여인은 여러색으로, 나이 든 여인은 단색으로 염색하였으며 빛깔이 무지개와 같다 하여 무지기 치마라고 불렀다 한다. 밑단을 분홍색으로 물들인 것은 이름을 달리 해서 연봉무지기치마라고 불렀다

(Kim, 1998).

Ⅲ. 조선시대 속옷 형태를 응용한 생활복 디자인

1. 디자인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속옷 중에서 단속곳, 살창고쟁이, 속바지, 무지기치마의 형태를 응용하여 총 8가지의 생활복을 디자인 개발, 제작 하였다.

본 연구의 생활복 디자인에 응용된 디자인 요소로는 삼합 무지기치마의 형태와 무지기 치마의 일정한 주름의 형태, 단속곳의 실루엣, 단속곳의 큰 바지통과 허리에 잡힌 주름, 살창고쟁이의 허리 말기 아래의 긴 구멍과 주름의 형태, 밑바대가 없이 뒤가 트인 바지의 형태, 밑바대가 있는 밑이 트인 바지의 형태를 응용하여 디자인 하였다.

2. 소재 및 기법

본 연구의 여름용 생활복 디자인 제작에 사용한 소재로는 쪽, 오배자, 감, 밤피, 호두외피, 상수리 잎 등으로 천연염색한 인견(레이온)을 사용하였다.

* 천연염색

1) 쪽 염색

본 연구에서는 생쪽 20kg과 무수탄산칼륨을 이용

<Fig. 16> Korean underskirt, The old underwear and sewing (Kyungwoon Museum, 2006, p.79)

<Fig. 17> Korean underskirt, Andong Area traditional clothes (Andong University, 1996)

<Fig. 18> Korean underskirt, Seongju multiple unearthed haepyeongyunssi the wife of Lee hyeongbo (Dankook university, 2010, p.40)

<Fig. 19> 3 sum slip skirt, The old underwear and sewing (Kyungwoon Museum, 2006, p.91)

하여 쪽 염색을 하였다. 7월말에서 8월 초 잘 자란 쪽을 베어 큰 고무통에 꼭꼭 눌러 담고 물을 채운다 <Fig. 20>. 날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하루가 지나면 물에 초록빛이 도는데 그때 담가 둔 쪽풀의 위 아래를 뒤집어 주었다<Fig. 21>. 3일째 되는 날 쪽풀이 누렇게 변하면 건져내고<Fig. 22>, 잿물 대신 무수탄산칼륨(K_2CO_3)을 넣어 PH농도가 11이 되도록 저어 주었다. <Fig. 23>과 같이 처음엔 흰 거품이 나타나다가 남색 거품으로 바뀌었으며·매일 아침저녁으로 20분씩 저어주었다.

<Fig. 24>와 같이 일주일 정도 되면서 거품아래 쪽물색이 녹색으로 바뀌었으며, 이렇게 만든 발효 쪽염액으로 인견(레이온)을 염색<Fig. 25>을 하였다.

2) 탄닌염색

탄닌(tannin) 식물계에서 가수분해에 의하여 다가

(多價)페놀산을 형성하는 물질의 통칭으로 수렴성(收斂性)을 나타낸다. 식물에 있어서 자체의 세균 등에 대한 방부벽 보호 기능을 하며 거의 모든 나무의 잎, 열매 및 열매의 표면을 덮고 있는 껍질에 포함되어 있다. 식물 탄닌은 온수에 의하여 쉽게 추출되며 대부분 무색의 무정한 물질이며 수용성이다(Joo, 2009).

본 논문에서는 상수리 잎, 밤껍질, 호두외피, 밤껍질, 오배자, 감물에서 탄닌성분을 추출하여 염색하였다. 상수리잎 10kg, 건조된 호두외피 5kg, 말린 밤껍질 1kg을 각각 물에 끓여 염액을 추출한후 각각의 염액에 인견 10마를 염색하였다.

감물염색은 딱딱한 풋감 10kg를 믹서기로 곱게 갈아 자루에 담고 물을 첨가해가며 한참 치대어 염액을 추출하여 염색하였다.

매염제로는 백반(aluminum sulfate)과 철(ferrous sulfate)을 사용하였다.

<Fig. 20> Soakage *Jjokpul*
(photographed by Researcher, 2014. 8. 2.)

<Fig. 21> turn upside down *Jjokpul*
(photographed by Researcher, 2014. 8. 3.)

<Fig. 22> Discolored after a spare *Jjokpul*
(photographed by Researcher, 2014. 8. 4.)

<Fig. 23> Rowing *Jjokmul*
(photographed by Researcher, 2014. 8. 7.)

<Fig. 24> Changed to green *Jjokmul*
(photographed by Researcher, 2014. 8. 13.)

<Fig. 25> Dyed cotton with *Jjokpul*
(photographed by Researcher, 2014. 8. 13.)

3) 견뢰도 실험

본 연구에서는 천연염색한 인견소재를 생활복 제작에 사용함에 있어서 천연염색의 단점인 견뢰도를 높여보고자 탄닌이 함유된 염료로 1차 염색하고 쪽으로 2차 염색하여 견뢰도 실험을 하였다.

인견에 쪽을 염색하였을 때와 호두피+쪽, 밤피+쪽, 오배자+쪽을 1차, 2차로 반복하여 염색한 인견으로 세탁견뢰도와 마찰견뢰도를 실험하였다.

① 세탁견뢰도 실험 (KS KO430)

* 시료 및 시약

- 시료: 쪽 1차 염색한 인견, 호두피+쪽 염색한 인견, 오배자+쪽 염색 밤피+쪽 염색한 인견, 염색 견뢰도용 침부백포(KS K 0905), 다섬교직포
- 시약: KS 합성세제 (KS M 2715)

* 실험방법

- 복합 시험편의 제작
시험편의 크기는 4cm*10cm로 하고, 그 위에 침부 백포(레이온, 실크) 두 장을 흰색의 면실로 바느질 한다.
- 세탁병에 0.5g의 합성세제, 증류수 100ml, 실험용 구슬 10개와 시험편 1개를 넣고 세탁 시험기(론더오미터)에 30분 동안 세탁한다.
- 세탁이 끝나면 복합시험편을 세탁병으로 부터 꺼내 증류수 (26±2℃)100ml로 1분간 2회 행군다.
- 시험편에서 물기를 제거한 후 세 번의 실을 뜯고 시험편의 나머지 한 번에 침부백포가 달린 상태에서 자연 건조한다.

- 결과는 변퇴색용/오염용 Grag Scal로 등급을 판정한다.

* 세탁견뢰도 실험 결과

쪽만을 염색하였을때 보다 탄닌을 1차 염색을 하고 쪽을 한 것이 전체적으로 좋은 세탁 견뢰도를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된 탄닌 염료 호두피, 오배자, 밤피 중에서 세탁견뢰도가 가장 좋게 나타난 것은 밤피였으며 그 다음은 호두피로 나타났다.

② 마찰견뢰도 실험 (KS K 0650)

* 시료 및 기기

- 시료: 쪽 1회 염색한 인견, 호두외피+쪽 염색 인견, 오배자+쪽 염색 인견, 밤피+쪽 염색 인견, 침부백포(마찰용 백면포)
- 기기: 크로크미터(crock meter) (KS K 0650)

* 실험방법

- 시험편의 크기를 20cm*10cm의 사각형으로 하고 경사방향을 길게하여 마찰 방향을 경사 방향으로 한다.
- 마찰용 백면의 크기는 약 5cm*5cm로 한다.
- 습윤시험 마찰 백면포는 시험 전 실온의 증류수에 적셔 약 100%의 습윤 상태인 것을 사용해 시험한 후 실온에서 말린다.
- 시험포를 내수 연마지 위에 고정시키고 마찰자를 건조 또는 습윤 상태인 마찰용 백색 면직물로 단단히 고정한다.
- 시험편 위에서 10cm 사이를 10초 동안 10회 왕복 마찰한다.
- 시험 전후의 침부 백포 색채를 오염용 GRAY

<Table 1> Color fastness to washing test results

	color change	stain	
		rayon	silk
Jok	3.4	4	4
Hodupi+Jok	4.5	4.5	4.5
Gallnut+Jok	4	4.5	4.5
Bampi+Jok	5	5	5

〈Table 2〉 Color fastness to rubbing test results

	dry	wet
Jjok 1회	4	2
Hodupi+Jjok	4	3~4
Gallnut+Jjok	4	3
Bampi+Jjok	3~4	1

SCALE로 등급을 판정한다.

③ 마찰 견뢰도 실험 결과

건조와 습윤 두 가지로 실험 하였을 때 습윤 상태가 건조된 상태보다 마찰견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쪽만 1회 염색하였을 때보다 밤피와 쪽을 같이 염색하였을 때 건조, 습윤 두 경우 모두 마찰견뢰도가 낮게 나타났고, 호두외피와 쪽을 함께 염색 하였을 때 마찰 견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조선시대 속옷 형태를 응용한 생활복 제작

1) 무지기치마를 응용한 디자인:

〈표 3〉 [작품 1-1], [작품 1-2]

조선시대 속옷 중 무지기치마의 3합, 5합, 7합의 구성 중 [작품 1-1]은 3장 형태가 합쳐져 있는 형태를 응용한 것으로 주름을 일정하고 곱게 잡아 하이웨스트 원피스의 하의에 응용하였다. 치마의 길이는 언밸런스(unbalance) 기법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느낌을 강조하였다. 무지기 치마의 곱고 일정한 주름의 형태를 호의 형태를 본떠서 곡선으로 언밸런스하게 디자인 하여 현대적인 느낌을 강조 하였으며 원피스 뒷길에 지퍼를 달아 세련됨과 실용성을 강조 하여 제작 하였다. 소재는 인견(레이온)을 사용 하였고, 염료는 감물, 밤피, 쪽으로 반복 염색하였다.

2) 단속곳을 응용한 디자인:

〈표 3〉 [작품 2-1], [작품 2-2]

단속곳의 외형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작품이다. [작품 2-1]은 밑바대의 형태를 속치마로 하고 양쪽 바지폭을 덧치마의 형태로 응용하였으며 옆에 달려 있던 허리끈을 양 옆에 달아 뒤로 묶은 형태이다. 뒷

길에 지퍼를 달아 활동성과 착용시 불편함을 고려하여 디자인 하였다. [작품 2-2]는 원피스 전체의 디자인을 평면재단 하였으며, 신축성이 덜한 인견의 특성을 살려 어깨부분에 2-3개의 주름을 잡았다. 소매 부분은 어깨부분부터 소매부리 까지 트임을 주어 활동성 있게 하였다. 허리말기 부분은 달지 않고 양옆에 허리끈만 달아 앞뒤로 자유롭게 장식 할 수 있는 끈으로 활용하였다. 소재는 인견을 사용 하였고, 염료는 감물, 오배자, 쪽, 상수리 잎을 반복 염색하여 제작 하였다.

3) 살창고쟁이를 응용한 디자인:

〈표 3〉 [작품 3-1], [작품 3-2]

살창 고쟁이의 허리 말기 아래 긴 구멍과 겹쳐져 있는 주름의 형태를 응용하였다. [작품 3-1]은 민소매 원피스에 하의는 언밸런스 기법으로 디자인하고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원피스 앞부분을 소매와 같은 컬러로 어긋하게 이중으로 달아주었다. 그리고 살창고쟁이의 펼쳐진 상태를 목 부분의 칼라(Collar)와 소매를 일체형으로 만들어 표현하였다. [작품 3-2]의 디자인은 [작품 3-1]과 같은 방법으로 칼라와 소매를 일체형으로 달았고 원피스의 형태에서 하의부분을 삼각형무의 형태를 덧붙힌 형태로 디자인하여 플레어스커트 같은 느낌을 주었다. 소재는 인견을 사용 하였고, 염료는 감물, 밤피, 쪽을 반복 염색하여 제작 하였다.

4) 속바지를 응용한 디자인:

〈표 3〉 [작품 4-1], [작품 4-2]

조선시대 속바지 종류 중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작품번호 4-1]은 밑바대가 없는 바

<Table 3> Fashion Design applying Underwear Forms in Joseon Dynasty Period

Works		Traditional Underwear Forms	Design element	Diagraming	Material	
Work 1	1-1	(photograph by researcher)	(Kyungwoon Museum, 2006, p.90)	(Kyungwoon Museum, 2006, p.91) Consistent, Straighted Wrinkles form of a slip skirt	(Illustration by researcher)	Rayon, persimmons, Jjok, bampi, ferrous sulfate
	1-2	(photograph by researcher)	(Kyungwoon Museum, 2006, p.90)	(Kyungwoon Museum, 2006, p.91) Consistent, Straighted Wrinkles form of a slip skirt	(Illustration by researcher)	Rayon, persimmons, Jjok, bampi, ferrous sulfate
Work 2	2-1	(photograph by researcher)	(Kyungwoon Museum, 2006, p.78)	(Kyungwoon Museum, 2006, p.79) The shape of a Korean undershirt	(Illustration by researcher)	Rayon, persimmons, Jjok,aluminum sulfate
	2-2	(photograph by researcher)	(Kyungwoon Museum, 2006, p.78)	(Kyungwoon Museum, 2006, p.79) wide-legged and wrinkle on waist of a Korean undershirt	(Illustration by researcher)	Rayon, persimmons, Oak leaf, ferrous sulfate

Work 3	3-1	(photograph by researcher)	(Andong University, 1996)	(Andong University, 1996) Terminal below the waist long holes and wrinkles form	(Illustration by researcher)	Rayon, persimmons, Jjok, bampi
	3-2	(photograph by researcher)	(Andong University, 1996)	(Andong University, 1996) Terminal below the waist long holes and wrinkles form	(Illustration by researcher)	Rayon, persimmons, bampi, ferrous sulfate
Work 4	4-1	(photograph by researcher)	(Illustration by researcher)	(Kyungwoon Museum, 2006, p.53) The form of a pair of pants was established, behind without mitppadae	(Illustration by researcher)	Rayon, persimmons, Gallnut, ferrous sulfate
	4-2	(photograph by researcher)	(Dankook University press, 2005, p.235)	(Kyungwoon Museum, 2006, p.53) Mitppadae the form of a pair of pants the bottom of the wheel (Kyungwoon Museum, 2006, p.63)	(Illustration by researcher)	Rayon, persimmons, Hodupi, aluminum sulfate

지를 그대로 응용한 디자인으로 바지의 배래를 바느질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를 스커트 디자인으로 하였다. 허리말기에는 스냅 단추를 달아 마무리 하고 끈을 장식으로 달았다. [작품 4-2]는 밑바대가 있는 속바지를 응용한 것으로 밑바대가 보이는 형태를 속바지로 응용하여 제작하고, 그 위에 바지폭을 겹쳐 덧치마 형태로 활용하였다. 속바지와 덧치마를 겹쳐 주름잡아 한 허리에 달았고 허리 말기는 후크로 마무리하고 끈은 장식으로 달았다. 소재는 인견을 사용하였고, 염료는 감, 오배자, 호두외피를 사용 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속옷의 종류와 형태를 고찰하고, 속옷의 형태를 디자인 요소로 응용하여 현대 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여름용 생활복으로 디자인개발 하고자 하였으며, 아름다운 우리나라 속옷의 형태를 재조명 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천연염색 의류가 생활한복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젊은 30-40세대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실용적이고 패셔너블한 디자인으로 여름용 생활복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본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속옷의 종류로는 상의류에 허리띠, 속적삼 등이 있었으며, 하의류에는 다리속곳, 속속곳, 속바지, 단속곳, 무지기치마 등이 있었다. 이들 전통 속옷류의 소재로는 봄가을에는 옥양목, 향라, 명주 등을 사용하였으며, 여름에는 모시, 생명주, 향라, 사등으로 하고, 겨울에는 명주 등을 사용하였다.

둘째, 여름철 소재로 세탁이 용이하고 실용적인 인견(레이온)을 사용하여 천연염색 하였다. 무늬가 있는 인견과 무늬가 없는 민무늬 인견에 1차로 탄닌이 함유된 식물성 염료(호두외피, 밤피, 오배자, 상수리잎)로 염색하고 2차로 쪽 염을 하거나, 다시한번 1차 염액으로 염색 하였다.

또한 염색 후 세탁이나 마찰에 의하여 색이 얼마나 잘 유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염을 한 직물로 견뢰도 실험을 한 결과, 세탁 견뢰도에 서 쪽만 하였을 때보다 탄닌을 1차 염색하고 쪽 염

을 한 것이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마찰 견뢰도는 건조와 습윤 두 가지로 실험 하였을 때 습윤 상태가 건조 상태보다 견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셋째, 천연염색한 인견을 사용하여 무지기치마를 응용한 원피스 2점, 살창 고쟁이를 응용한 원피스2점, 단속곳을 응용한 원피스 2점, 밑바대가 없고 밀트인 바지의 형태를 디자인한 치마 1점, 밑바대가 있고 밀트인 바지를 응용한 치마바지 1점 등 총 8점의 생활복을 제작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전통 복식의 형태를 응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계속되어 우리의 전통을 재조명 하고 계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Reference

- Andong University museum (1996). *Andong Area traditional clothes* [안동지역 전통복식]. Andong, Republic of Korea: Andong University museum.
- Dankook University Seok Juseon Memorial Museum (2013). *Yeongreung chambong hanminjun family artifacts unearthed myo* [영릉 참봉 한준민 일가 묘출토 유물]. Yong-in, Republic of Korea: Dankook University Seok Juseon Memorial Museum.
- Dankook University Seok Juseon Memorial Museum (2010). *Mrs. Lee, the lord doubles unearthed haepyeongyunssi* [성주이씨 형보의 부인 해평윤씨 출토복식]. Yong-in, Republic of Korea: Dankook University Seok Juseon Memorial Museum
- Joo, G. (2009). *Natural dyed a dictionary* [증보 천연염색 염색사전]. Busan, Republic of Korea: Achwieon.
- Kim, Y. (1998). *Dictionary of Korean culture from the diaphragm*. Seoul, Republic of Korea: a publishing culture.
- Kyungwoon Museum (2006). *The old underwear and sewing* [옛 속옷과 침 선]. Seoul, Republic of Korea: Kyungwoon Museum.
- Onyang Folk Museum (2012). *Conversation with you in a subdued voice* [소곤소곤 당신과의 대화]. Iksan , Republic of Korea: Soo-hyun culture.
- Park, S. & Jo, H. & Lee, E. (2005). *Charm and woman during the Chosun Dynasty attire*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Seoul, Republic of Korea: Dankook University press
- Yoo, H. & Kim M. (1981). *Korea investment cultural history* [한국복식문화사]. Seoul, Republic of Korea: Printing Art and Culture.